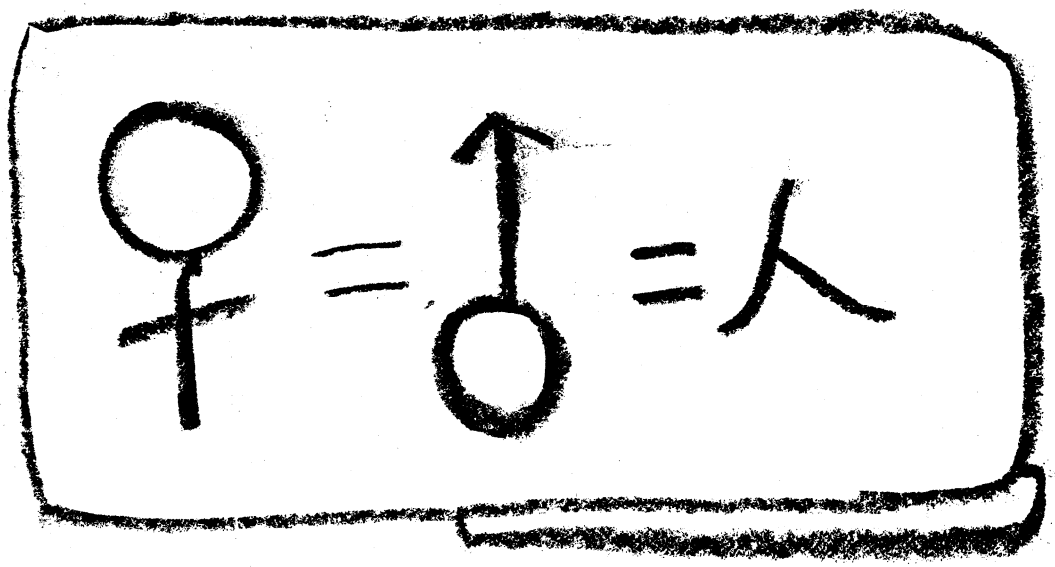
이만학우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성상담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성상담소의 위치 : *사회대 4층 421호*

전화번호 : *950-5239*

칠천의 든든한 친구

제8대 자/주/총/여/학/생/회

글을 싣는 순서

1. 인 사 의 글

2. 여성 상담소! 왜 만들었을까요?

3. 여성상담소 이용 방법

4. 성폭력!
   --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5. 규찰대 유경험자에게 들었습니다.
   -- 북한골에서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요?

6. 앗! 내게도 이런일이
   -- 침착! 침착! 대책을 생각해봅시다.

인사의 글

『주머니 안에 만원이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가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어, 돈이 있었네'라고 말한다. 돈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이제사 당신이 알았을 뿐이다. ---묵타난다』

즉, 자각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면 삶을 살 수 없다.

총여학생회는 경북대학교의 7천여명의 여학생들이 참된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있는 삶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지속적으로 여성을 가로막아온 성차별과 불시의 재난으로써의 성폭력에 맞서 이 모든 것의 실체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남성의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이 경주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이라는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주장이다.

여학생회가 이 원론적인 지론의 한복판을 주시하여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성차별의 뿌리가 깊다는 현실인식과 성폭력과 성차별의 구조적 문제와 그 예방방법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성을 호소하고 그 실상을 담아 만들어 낸 것이 이 작은 팜플렛이다.
그들이 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바쳐온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치하하며 이 책자가 진실을 찾아나서는 그 출발점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성상담소 또한 힘든 문제에 부딪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둔다.

사회과학대학 4층 421호 여성상담소에서

여성상담소 상담교수 이 영자

여성 상담소 왜 만들어 졌나요?

92년 어느때 복현골의 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성폭력을 추방합시다"라는 현수막이 나붙던 복현골.
복현골을 집이나서 마음대로 다닐수 없다던 학우들의 이야기.
간간이 들려오는 "**에서 ** 학우가 큰일 당할 뻔 했다"는 이야기.
이제 복현골도 복현의 주인이 마음껏 다닐수 없는 무법천지.

학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음성적으로 이야기되고 그리고 여러차례 공개화되었습니다. 피해자나 2만 복현학우는 다같이 학내 성폭력에 대해 분노를 하고 한편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성폭력을 추방할 대책은 없을까? 아니 그런 위협을 받고있는 이만 복현 학우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대책을 세워나갈 그런 곳은 없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여성상담소는 생겨났습니다.

여성상담소에서는 학내 성폭력문제뿐만 아니라 연애,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집단상담이나 집단성교육등을 신청하는 것도 좋겠지요.

민족복현 이만학우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여성상담소 이용 방법

1. 전화상담

950-5239(여성상담소),
763-6475(이영자 교수님 댁전화)

2. 여성상담소 개방시간

월-오전 9:00~ 오후 6:00

화-오후 1:00~ 오후 6:00

수-오후 1:00~ 오후 6:00

금-오후 1:00~ 오후 6:00

3. 여성상담소는 어디에 있을까?

사회대 4층 421호.

성폭력!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복현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내 성폭력은 기존의 성관념을 깨뜨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주위에서 알게 될까봐 쉬쉬하는 일로서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내 성폭행은 재수없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도 성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로서 2만 복현 학우의 자발적인 힘으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실제 강간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1989년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동안 32만건, 하루에 877건, 1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동거자)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게임)제작, 판매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가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심한 우울과 좌절, 불안감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때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려 정상적인 결혼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까지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한 조사에 의하면 강간피해자의 12%가 임신, 10%가 상해, 1.3%가 성병감염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성폭력의 충격과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는...

주위에 알리겠다는 가해자의 협박과 돈 요구에 의해 연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폭력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협박이나 사내의 소문에 의해 피해여성이 오히려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이혼을 당하게도 합니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에서 존재하는 잘못된 순결관에 의해 피해여성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올바로 알시다.

성폭력 없는 사회, 우리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편견부터 점검하고 이웃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여러가지로 나타납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성적인 접촉, 음란전화 등도 성폭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 젊은 여자들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나 현실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31%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는 최하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이 아니라, '남자는 억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남성 개인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보다는 남성의 공격적인 성행동을 '남성다운 행동'이라고 묵인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노출이 심한 옷차림과 야한 언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풍토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반바지와 소매없는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보가나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신체가 많이 노출된 옷을 입은 여성만이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입니다. 피해자의 어떠한 옷차림이나 언동도 성폭력을 정당화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입니다.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며, 이때에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동료나 상사, 이웃집 아저씨나 아는 오빠, 근친(아버지, 의붓아버지, 오빠)또는 친인척(사촌오빠, 형부, 삼촌, 이모부, 고모부)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성관계이다.

성관계란 남녀간에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강간은 여성의 뜻과는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이며 힘과 물리적, 심리적 강제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한 '폭력'입니다. 이는 엄연히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 보다는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간범은 정신이상자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이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말고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풍토의 척결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향락퇴폐문화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소위 3S라 불리는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통해 국민을 비정치화하고 의식을 마비시키며 향락퇴폐문화를 조장하는 사회풍토 속에서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는 룸사롱, 카페, 요정, 안마시술소, 사우나, 퇴폐이발소, 터어키탕, 러브호텔 등의 향락업소는 전국 45만개로 추정되며 이들의 매출액은 연 4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술 접대문화는 성의 상품화와 맞물려 퇴폐적이고 변태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성행위와 성폭력을 부추깁니다.

성교육의 부재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성'은 자연히 알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성교육을 한다해도 단순히 남녀의 신체구조나 생리현상에 대한 단편적 지식전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남성에게는 성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을, 그리고 성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성에 대한 이중규범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중규범에 입각한 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을 접했을 때 쉽게 여성을 성적 공격의 대상으로 보고 성폭력을 자행하게 합니다.

학내 성폭력 사례

@1993.4.18
교양과정동 여학생 화장실에 남자가 칼을 들고 침입.여학생의 안경을 벗기고 구타함. 밖에 있던 여학생의 일행들에 의해 다행히 여학생은 무사하고 남자는 도망감.

@1992.11월에 후문으로 늦게 귀가하던 여학우가 남학우에게 끌려가 테니스코트장 근처에서 성추행당함.자신이 공대생이라고 말함.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여학생이 소리지르고 도망쳐나옴.

@학교에 성기노출증 환자 자주 발생함.
주로 교동 네거리,테니스코트장,소강당 쪽에서 여학생들이 지나갈 때에만 나타나 "봐라 봐라" "아가씨 내랑 연애하자"이런 말을 던짐.비올때는 우산으로얼굴가리고 성기만 노출 한 채 서 있음.키는 164~5쯤 되고 통통하고 뿔테 안경을 끼고 곱슬머리임.

@1992년 인문대 독서실에서 한 여학생이 공부중인데 딴자리에 있던 남학생이 옆에 앉더니,여학생쪽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또 그 여학생이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내고 있었는데 마침옆에 사람이 앉아서 그 남학생은 다른데로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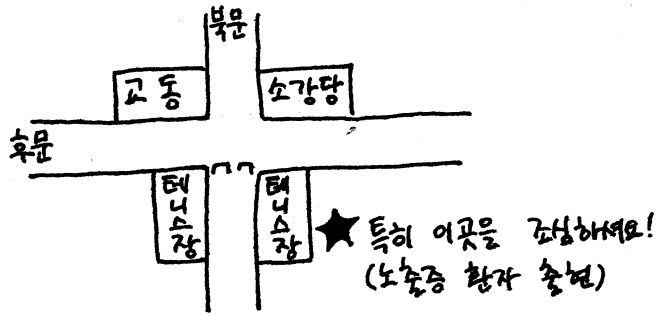
@92년에 농대에 불량배 여러명이 들어와 여학생 화장실을 1층부터 4층까지 뒤지고 다님.학생회 사람들이 붙잡아서 혼을 내고 쫓아보냄.

@최근 중도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 앞에서 나오는 여학생마다 붙잡고 "애인 있느냐" "연애하자"는 말로 추근.그러다 여학생이 도망가면 뒤쫓아와서 계속 추근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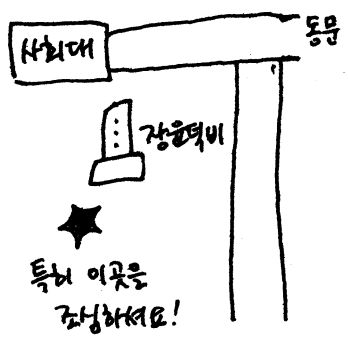
✠ 규찰대 유경험자에게 물었습니다 ✠

복현골에서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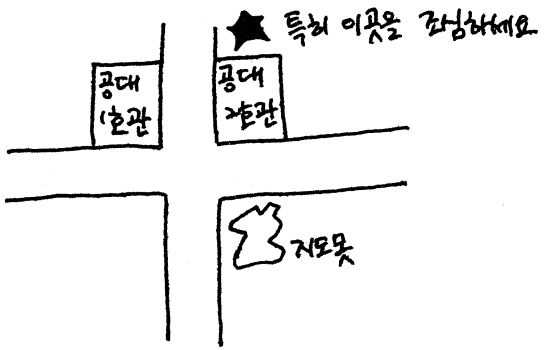
1. 테니스장 근처(건물이 있는 운동장)



2. 사회대 옆 장윤덕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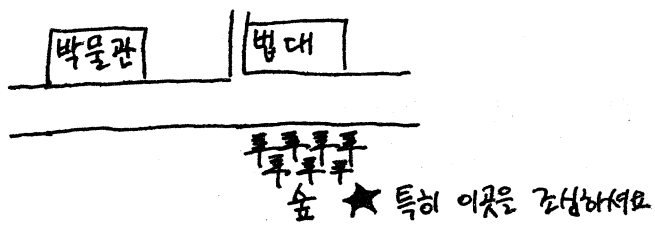


3. 공대 2호관 뒷편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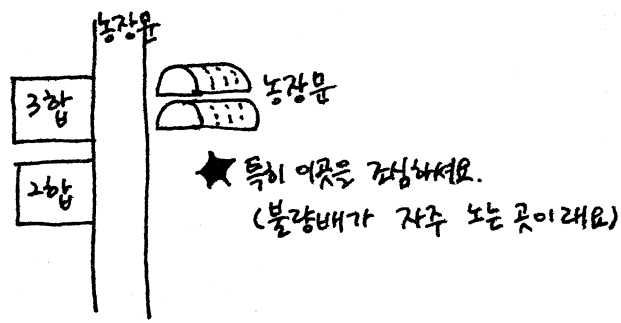


4. 수의대(신관 옆)-러브로드 쪽

5. 법대 앞 숲



6. 농장문 쪽



✠ 앗!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

침착! 침착!
대책을 생각해 봅시다

1. 노출증 환자를 만났을 경우

교동 네거리의 테니스장 근처에서 특히 노출증 환자를 자주 맞딱드립니다. 내가 평생 교동 네거리를 지나다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노출증 환자와 맞딱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교동네거리가 아니라도 노출증 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소리를 지르며 불이 있는 쪽으로 줄달음질 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노출증 환자에게 기쁨만 더해줄 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노출증 환자는 일상생활에서는 그지없이 온순하고 유약하며 소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의식 발달 정도가 7~8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즉, 어린 꼬마들이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였을때 그사람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이 기쁨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질게 다져먹고 이렇게 대처해 봅시다.

"당신, 그런 행동하면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당신 인격만 더 훼손된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등의 훈계성 발언, 즉 그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건드리거나,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하는 것(이것은 고상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 여학우가 실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가장 큰 소리로 말했더니 그 사람이 "왜 욕을 하고 그럽니까."하고 말하는데 이미 한풀 죽어있고 슬쩍 바지를 올리더라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가슴이 떨리고 무서워서 못할 상황이면 **애써 눈에 정기를 모으고 한번 쓱 째려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는 듯 혀를 한번 차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 즉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테니스장 근처를 지날 때에는 그런 사람이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맞딱뜨리는 것 보다야 결과는 낫지 않겠습니까?

2.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들과 맞딱뜨렸을 경우

저녁 늦게는 학교에 술먹고 홍청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을 집적거리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맞딱뜨렸을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성폭행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회를 봐서 가지고 있던 물건 다 팽개치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지르면서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사람이 좀 더 많이 다니는 길인지, 건물은 어느쪽인지 생각한 후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안에는 거의 모두 관리실이 있으므로 거기에 도움을 청하십시오.(가능하다면 각 단대 학생회나 총학생회, 총여학생회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950-6961,2,5) 관리실 아저씨와 함께 나가서 팽개쳤던 물건을 찾고 안전한 곳까지 바래다 달라고 하십시오.

3. 그러나 만에 하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리고 설마 나에게 이런일이 생길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을경우, 걱정반 불안반

으로 조처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일이 내게 생긴다면 어렇게 하십시오.

1)우선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러한 산부인과 진찰의 목적은
첫째,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성병이나 임신여부,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혼란한 정신을 수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병에 걸렸다면 성병치료 주사를,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이러한 과정은 24~72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째, 고소를 할 경우 이 진단서는 재판에 꼭 필요한 증거입니다. 몸에 멍이 들거나 다른 상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빨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런 것을 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과정들은 친한 친구나 동료가 그 피해자를 추스려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단체에 문의합니다.

대구여성회:053-421-6758

3)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강간은 현행법상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은 숨겨지게 되고 가해자의 범행도 벌을 받지 않아 결국 성폭력 범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경우, 가해자를 벌하고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주저 앉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방법 및 절차&

1.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을 사고난 지역이나 가해자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냅니다.

3.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조서와 가해자 조서, 대질심문 등이 있습니다. 진술시에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꾸며서 얘기하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4.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5. 가해자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피해자 측에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시한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6.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므로 필요시 증인으로 출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비공개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1심에 불복하면 판결이 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형사재판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해자에게 물질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주소지의 법원이나 피해사고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